

2018 3월 24일 서울시 7급 국어 A책형

제공 : 유두선 교수

1. ① 손난로[손날로] 역행 동화

<오답풀이>

② 불노리[불로리] 순행 동화

③ 찰나[찰라] 순행 동화

④ 강릉[강능] 순행동화

정답 ①

2. ① ‘계시다’는 직접 높임에 쓰인다. 여기서는 간접높임이므로 ‘택에 있으신가요’가 바르다

정답 ①

3. 큰과 작은 서로 의미상 관련이 있는 다의어 관계이다.

정답 ④

4. ③ 보초에게 발각될까봐 아이의 입을 막아서 죽게 된 사건을 말한다. 군인이 죽인 것이 아니다.

정답 ③

5. ④ 대량소비가 줄어들면 우리 사회는 다른 구조로 넘어간다고 했으니 대량 소비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말은 잘못이다.

정답 ④

6. ③ 살짝(부사)+ 곰보(명사) -> 비통사적 합성어

딱딱(부사)+ 새(명사) -> 비통사적 합성어

<오답풀이>

①은 중간에 관형사형어미가 빠진 비통사적 합성어

②는 얼룩(명사)+ 소(명사)-통사적 합성어

④는 쉬(용언)+ 어(어미)+ 찌개(명사)-통사적합성어

정답 ③

7. ㄴ. [구과] 축약되어 음운의 수가 줄었다.

ㄷ. [술립] 첨가가 되어 음운의 수가 늘었다. 재미 있는 신경향 문제이다.

정답 ③

8. ① ‘新里’는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리’이다. Sin-ri로 표기해야 한다.

정답 ①

9. 비록 자기 때문은 아니지만 노인이 쓰러진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버스를 탄 행위에 변명하면서도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다.

정답 ③

10. 「안민가」는 10구체 향가이다. ①, ③, ④는 모두 10구체이나 ② 처용가는 8구체이다.

<오답풀이>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는 4구체, 모죽지랑가, 처용가는 8구체 ‘서풍헌도모처’로 외우자 나머지는 10구체 향가이다.

정답 ②

11. 중세 국어 표기에 해당하는 것은 ㄱ(8종성법) ㄴ(종성부용초성) ㄹ(연서법)이다.

<오답풀이>

ㄴ은 임란 이후 표기고 ㄷ은 한자는 동국정운식 표기 앞에 병기했다.

정답 ④

12. ① (가)는 임이 죽은 이후의 시간경과 (나) 여동생의 죽은 이후의 시간경과가 있다.

<오답풀이>

② (나)는 여동생의 사별

③ (가)는 사별의 한만이 나타나 있다.

④ (가)는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고 (나)는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정답 ①

13. ② 過(지날 과) 程(한도 정)

纏(엮을 전) 足(발 족)
歪(기울 왜) 曲(굽을 곡)
枯(마를 고) 死(죽을 사)

정답 ②

14. ② 두름 :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정답 ②

15. ③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흑시 길이 미끄럽거든 지하철을 이용해라.

정답 ③

16. 가난한 생활이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② ‘간난신고’는 몹시 고되고 어렵고 맵고 쓰다는 뜻으로 몹시 힘든 고생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풀이>

① 안분지족 : 자신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며 사는 것

③ 빈이무원 : 가난하면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음

④ 단사표음 : 도시락에 담은 밥과 표주박의 물,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으며 소박하고 청빈하게 사는 삶을 이룸

정답 ②

17. ② 주어진 글에는 유통에 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정답 ②

18. ④ ‘올 듯하다/올듯하다’가 모두 바른 표기이나 조사가 붙으면 늘 띄어 쓴다.

<오답풀이>

① ‘지’는 시간 개념일 때는 띄어쓴다.

② ‘관계없이’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붙여 쓴다.

③ 해 섬 산 강 등은 외라어 뒤에서 붙여 쓴다.

정답 ④

19. ① ‘본용언+ 본용언’의 구조이다.

<오답풀이>

②, ③, ④는 모두 보조용언이다.

정답 ①

20. ④ 주어진 글에는 유추도 없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정답 ④

<총평>

문법과 어휘가 11문항 문학이 5문항 독해 2문항 한자 2문항이 출제되었다. 서울시는 독해가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2문항이 출제되었다. 문학에는 고전 문학도 출제되었다. 문법은 어렵지 않고 골고루 출제되었고 참신한 문제도 눈에 많이 띄었다. 서울시는 늘 신경향 문제가 1~2문제가 출제되니 주의해야 한다.